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인문학]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진실을 추구하지만 이야기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는 혼종 학문인 역사학은 인문학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다른 학문보다 더 어렵기도 하고 더 쉽기도 하다. 역사가들은 원하는 정보 모두를 획득할 때까지 사료를 끊임없이 파헤치고, ‘사실’을 다루는 자신들의 깊이를 앞세워 여타 학문의 동료들을 괴롭히는 쿿대 높은 경험주의자들이다. 이와 동시에 역사책은 흔히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가장 성공적인 역사서들은 대체로 훌륭한 소설의 속성을 일정하게 갖고 있다. 역사학의 본질적 혼종성은 과거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성과 허구성 사이의 경계에 관한 논쟁의 핵심적 이유이다.

(나) 크리스토퍼 브라우닝(Christopher Browning)은 1942~1943년에 걸쳐 약 38,000명의 유대인 학살 명령을 수행한 독일 101예비경찰대의 재판 기록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학살에 가담했던 이유를 설명한다.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당황한 대원들에게 상관의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빠져도 좋다고 말했지만, 선택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80~90%의 대원들이 대량 학살에 가담했다. 브라우닝은 사회적 관계로 인해 나약한 인간이 부당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순응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 임무를 거부할 때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학살 가담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브라우닝은 무엇이 보통 사람들을 그토록 잔혹한 범죄에 가담하도록 이끌었는가를 이해하려 했던 것이고 그의 결론은 집단적 순응성의 압도적인 영향이었다.

(다) 대니얼 골드하겐(Daniel Goldhagen)은 브라우닝과 동일한 사료를 검토하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그의 결론은 101예비경찰대의 압도적 다수가 동료들의 압력, 복종, 혹은 자신들의 경력 때문에 학살에 가담했던 것이 아니라, 섬뜩할 정도로 냉담하고 잔인한 행동을 묘사한 기록들에서 드러나듯 유대인 학살의 적극적 욕망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골드하겐은, 학살 가담이 내키지 않았고 자신들의 행동을 혐오했다는 대원들의 진술이 자기 변호에 불과하며, 그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정치문화의 보통 사람들’이라고 보았다. 그의 명제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독일인의 반유대주의적 신념이

홀로코스트를 유발한 핵심 동인이다.” 골드하겐은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반유대주의라는 당시 독일 사회의 특수성을 문제시켰다. 그의 자명한 주장은 앞선 역사가들과 달랐지만, 상당한 대중적 찬사를 받았다.

[문제 1] (가)에서 말한 역사학에서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와 (다)에서 발견되는 허구적 요소가 각각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문제 2] (가)에서 말한 ‘혼종성’이 다른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오전

활용 모집단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제외) 간호대학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 자유전공학부
문항해설	[문제 1] 역사학에서의 허구성은 역사의 재구성과 해석에서 사료의 사실성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부분을 역사가가 서사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학에서의 허구성과는 달리 사실에 기반해야 하고 그 서사적 구성이 논리적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와 (다)의 다른 해석은 두 역사가가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인간의 집단적 순응성을 중시했는데, 이는 독일 사회의 특수성보다는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부당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보편성에 초점을 맞춘 입장이다. (다)는 당시 독일인들의 반유대주의적 신념의 영향을 중시하여 인간의 보편성보다는 독일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한 입장이다. 더욱이 (다)에서는 가해자 진술은 자기 변호에 불과하므로 사료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해석을 한 (나)에서는 가해자 진술을 적절하게 받아들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문제 2] 역사학의 혼종성이란 역사학이 사실성과 허구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종성은 역사학만의 특성이 아니다. 사회과학은 물론이고 자연과학에서도 증거에 기반하여 현상을 해석하고 이론을 정립하지만,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현상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 있다.
출제의도	[문제 1]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제시문들의 관계와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문제 2]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 능력, 종합적 사고력과 응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출제근거	[개념] 역사, 역사관, 사실성과 허구성, 혼종성, 악의 평범성, 학문의 특성, 객관적 사실, 연구자의 해석 [출처]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자료출처

[교과서]

김동환 외, 《국어》, (주)교학사, 128-141, 209-261쪽
 고형진 외, 《국어》, 동아출판, 172-207, 266-293쪽
 류수열 외, 《국어》, 금성출판사, 164-183, 280-311쪽
 신유식 외, 《국어》, 미래엔, 134-153, 303-331쪽
 고형진 외, 《독서》, 동아출판, 42-85, 114-145쪽
 박영목 외, 《독서》, 천재교육, 42-73, 100-131쪽
 방민호 외, 《독서》, 미래엔, 74-105, 134-173쪽
 서혁 외, 《독서》, 신사고, 22-69, 118-143쪽
 이삼형 외, 《독서》, 지학사, 54-73, 118-151쪽
 한철우 외, 《독서》, 비상교육, 52-79, 118-143쪽
 박중현 외, 《한국사》, 해냄에듀, 10-13쪽
 최준채 외, 《한국사》, 금성출판사, 2-3쪽
 한철호 외, 《한국사》, 미래엔, 2-3쪽
 김덕수 외, 《세계사》, 천재출판사, 13-17쪽
 김형중 외, 《세계사》, 금성출판사, 12-15쪽
 이병인 외, 《세계사》, 비상교육, 10-15쪽
 최준채 외, 《세계사》, 미래엔, 10-15쪽

[기타]

사라 마자(Sarah Maza), 《역사에 대해 생각하기》, 책과함께, 2020
 크리스토퍼 브라우닝, 《아주 평범한 사람들:101예비경찰대대와 유대인 학살》, 책과함께, 2023
 이진모, 《“골드하겐 현상(Goldhagen Phenomenon)”과 역사정치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의 반응 비교-》, 서양사론, 2011